

KT 자회사 '甲의 횡포'... 협력업체 임대료 폭탄

KT 에스테이트, 광주 서구 사옥 입주업체에

33% 인상 요구... "수용 안하려면 나가라" 배짱

KT의 부동산 사업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가 자사 사옥 입주자를 상대로 도를 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측은 임대료 현실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KT의 건물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KT의 광주지역 협력업체인 A통신에 따르면, KT 에스테이트는 올해 초 A업체 외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KT의

광주시 서구 풍암국사 임대료를 지난해보다 무려 32.86% 인상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면적 측정이 잘못돼 재측정된 결과 전용면적이 늘었고, 그만큼의 관리비가 더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건물의 전용면적이 2013년보다 243㎡ 늘었고, 관리비는 기존에 비해 5500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임대료 폭탄'을 맞게 된 입주업체들은 황당함을 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2년부터 이들 업체들이 임대해 사용중인데, 매년 물가상승률(2~

3%) 수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되어 왔으나 갑자기 30%가 넘게 임대료가 오르면서 업체당 매달 평균 80만원 가량의 월세를 더 내야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인상 제시했지만 실제 건물관리에는 1원도 쓰지 않는 행태도 입주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기존의 건물 면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왔는데 KT 에스테이트가 관리를 맡은 뒤 갑자기 건물 면적이 늘었다"며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관리비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건물에 소요되는 공동전기나 비품, 청소 등은 입주업체들에게 맡겨 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KT 에스테이트 측은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나가라'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올해들어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이 건물에서 3개 업체가 이미 퇴거했고, 6개 업체가 계약 연장을 고심중이다.

KT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청업체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혹여 제시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KT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 KT 사옥의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KT 에스테이트가 부동산 관리를 맡게 된 이후 임대료 현실화 과정중에 있다"며 "임대료를 시세에 맞추다 보니 입주자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2.36 (+20.89)

금리 2.52%

▲ 코스닥 551.73 (+5.97)

▲ 환율 1028.90원(+2.50)

광주 김치, 대만 간다

오늘 7t 첫 수출길 지난해 日 수출 이어 동남아 진출 가속화

광주 김치가 14일 대만으로 첫 수출된다. 지난해 12월 일본 수출에 이어 대만 수출에 성공함에 따라 광주 김치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꾸준한 해외마케팅으로 지난달 30일 대만의 한영국제유한공사와 1차 7톤(4000만원 상당)의 김치 수출계약을 체결해 14일 첫 수출길에 오르며, 오는 10월 연간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광주김치는 지난 6월 대만식품박람회 시식·홍보 행사에서 현지인의 선호도가 높았던 배추김치, 깍두기, 알타리 김치 등 고가 제품이다.

수출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12일간 대만 원동 백화점 2곳에서 광주김치 시식, 홍보, 판촉행사와 함께 '광주김치 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의 시연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톤(1억 3000만원)의 김치를 일본으로 수출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 일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김치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이 대만 시장 진출을 계기로 홍콩, 태국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향후 중국 김치수출시장 개방 시 중국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신세계 희망배달마차

13일 광주시청에서 유신열 광주 신세계대표, 장재영 (주)신세계 대표이사, 윤장현 광주시장, 방철호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부터)이 희망배달마차 사업연장 협약을 마치고 운임1동 저소득층 75세대에게 전달할 식료품과 생활용품에 차에 싣고 있다. 희망배달마차 사업은 1t 탑재로 저소득층을 찾아가 이동식 장터를 열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활동으로 이번 협약으로 오는 2017년 7월까지 3년간 활동이 연장된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전남 지역민 카드 사용액 역외 유출 심각

지역외 사용금액 4분의 1 달해 ...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 외에서 쓰는 카드 금액이 전체 사용금액의 4분의 1 수준에 달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3일 '광주전남 경제이슈'를 발표한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전성범 과장의 '개인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 소비 유출입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연구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용카드 사

용액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은 15조원인 반면 지역민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20조원으로 순역외 소비액(순역외소비율 25%)이 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역외소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특정 업종(국산 신차, 흡소핑 및 인터넷 판매, 금융보험, 항공사, 여행사 및 렌터카)의 경우 카드승인처(본사)가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 등 외지에 집중돼 카드 이용실적이 광주·전남으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업종별 소비의 유출입을 보면 내구소비재(1872억원), 유통업(3632억원), 의료보건(948억원), 오락문화(900억원) 등은 순유출이 큰 반면 연료판매(1604억원), 음식숙박(260억원), 음료건강식품업(243억원) 등은 순유입이 더 컸다.

한편 2013년 광주·전남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 15조원은 전년(14조4000억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8조 8000억원, 전남이 6조2000억원으로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1인당 사용액도 591만원으로 전국평균(908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주식시장 휴장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 동안 증권시장 등이 휴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인 내달 10일을 포함, 9월 8~10일까지 3거래일 동안 증권·파생상품·일반상품시장이 휴장한다.

증권시장에는 주식시장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수익증권, 채권, 주식워런트증권시장이 포함된다. 파생상품시장에는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 시장, 일반상품시장에는 KRX석유 및 금시장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불소·색소 무첨가 '알로에 치약' 출시

호남최대의 알로에 전문 기업 그린알로에가 알로에베라와 천연 원료를 사용한 신개념 치약 '그린내추럴 알로에치약'을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계면활성제(SLS)와 불소,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은 '4무(無) 제품'으로,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고 그린알로에 측은 설명했다.

화학합성계면활성제(SLS)의 경우 거품을 내는 기포제와 세정력을 함유해 양치 시 목속으로 들어가면 면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장기간 사용 시 혀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그린내추럴 알로에치약'은 국제 유기농 인증회인 '에코서트'에 등록된 천연유래성분 95%의 원료를 사용해 양치 후 바로 과일을 먹어도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NO주스반응' 제품이다.

'NO주스반응'이란 양치 후 주스를 마셨을 때 음료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또 치아의 자연보호막을 약하게 해 치아 손상을 촉진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인



불소를 빼고, 인공 색소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산 원료는 단 1%도 함유하지 않았다.

그린알로에 관계자는 "치약은 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청량감과 양치 후 식감, 유해성분으로부터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천연 성분을 함유했기 때문에 각종 잇몸질환으로 고생하거나 흡연으로 인한 치아 변색을 우려하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080-234-6588).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를 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남광주농협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